

전남의 작은학교가 “커진다”

전남교육청,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사업 눈길
해양특성화·생태학교 등 특색교육 “지역 교육 희망 제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와 통폐합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특색있는 교육을 통해 정면돌파에 나선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있다. 바다를 교실 삼은 해양 특성화 학교,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학교, 해외 영화제 출품을 준비하는 영화학교 등은 지역을 살리고 교육의 희망을 제시하는 모델로 주목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남에는 면 단위 이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만큼, 학교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마다 살아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갖춘 특성화 모델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2024년 선정돼 운영 중인 특성화 모델학교는 ▲목포서산초(바다랑 학교) ▲화양초

(학생작가학교) ▲서삼초(TH+ 건강한 아토피 안심학교) ▲중동초(산수유골 씨네스쿨) ▲삼기초(마을을 품은 권있는 영화학교) ▲덕진초(월출 요리조리학교) ▲간문초(영어뮤지컬학교) ▲별량초(지구별 생태학교) ▲고흥대서중(글로벌 학교) ▲나주봉황중(국악예술감성학교) 등 10개다.

올해는 청풍초(할리우드 영화학교), 군남초(균형성장학교), 팔금초(물너울학교)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특히 목포서산초는 2023년 전교생 12명으로 통폐합 위기에 놓였지만, 특성화 사업 선정 이후 반전을 이뤘다. 목포해양대학교, 목포해양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안전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통학 지원도 강화한 결과 2024년에는 32명, 2025년에는 50명까지 학생 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

뤘다.

구례 중동초는 연극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특성화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 어촌 유학생 33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공동체로 발전하며, 농산어촌유학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서삼초는 아토피 등 환경 질환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교는 친환경 교실, 사계절 생태놀이, 치유형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하며 건강한 삶을 중심에 둔 교육을 실천 중이다. 그 결과, 전교생 38명에서 47명으로 늘었고, ‘건강한 학교’라는 명성이 학부모들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풍초는 독서와 인문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지역 영화감독 및 예술강사들과 함께 영화를 완성하는 ‘학생주도 영화학교’다. 올해는 특히 자체 제작한 영화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학생들과 함께 도전을 잇는다.

이 밖에도 고흥대서중은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현지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국제 교류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운다. 군남초는 학생들의 근지구력, 스트레스 지수, 영양 상태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성장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특색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지역의 학생 수 감소세가 완만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과정 특성화, 통학 지원, 교육활동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선옥 기자

완도중앙초, ‘세계 책의 날’ 기념 독서 행사



완도중앙초등학교(교장 임윤철)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도서관 주간 행사를 열고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책과 도서관에 더 가까워지고, 저작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 포춘퀴즈’와 ‘무럭무럭 독서 쏘나무’ 활

동이 마련되었다. 책을 대출한 학생들은 독서 명언이 담긴 포춘퀴즈를 받아보며 책 읽는 즐거움을 느꼈고, 자신의 독서 다짐을 포스트잇에 적어 도서관 게시판에 전시된 ‘독서 쏘나무’에 붙이며 함께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갔다.

학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1, 2학년은 도서관과 관련된 숨은 단어나 문장을 찾아보는 ‘숨은 문장 찾기’에 도전했으며, 3, 4학년은 ‘세계 책의 날 퀴즈 풀기’ 활동을 통해 책과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지식을 쌓았다. 5, 6학년은 ‘잃어버린 책을 찾아라!’ 활동에서 책탐정이 되어 청구기호를 활용해 사라진 책을 찾으며 도서관 이용법을 익히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중앙초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책과 함께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갔다”고 전했다.

서부취재본부



순천봉화초,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위한 ‘일단 멈춤, 아이 먼저’

순천봉화초등학교(교장 김명숙)가 4월 30일 오전 8시,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단 멈춤, 아이 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순천봉화초 학부모회와 전교학생회를 비롯해 교직원,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왕조지구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손수 만든 교통안전 표지와 피켓을 들고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부모와 경찰 관계자들은 등교 시간에 맞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정차 유도, 어린이 보호구역 준수 홍보 등을 진행했다. 이른 아침부터 캠페인에 동참한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준비한 손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학생들을 반기며 활기찬 안전 등교 분위기

를 조성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교통통제를 함께 지원하며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시민들과 운전자들에게도 학교 주변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순천봉화초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해숙 학부모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더 안전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숙 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준 학부모, 교직원, 학생회,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교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목포교육청, ‘2025. 학교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은 4월 30일 목포영재교육원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보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2025. 학교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이번 훈련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석주 교수를 초빙하여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 대응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결핵환자 발생을 가정한 도상 훈련을 통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참여 교사들은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학교 구성원별 역할을 분담하고, 감염병 발생

시 대응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학교, 교육지원청,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훈련에 참가한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감염병 발생 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방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덕원 교육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실천 감각을 기



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